

플래너리 오코너의 폭력과 윤리*

원 철**

〈차 례〉

1. 서론
2. 『현명한 피』
3. 「좋은 사람」
4. 「계시」
5. 결론

【국문초록】

플래너리 오코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폭력이 인물들을 종교적 구원으로 이끄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서로 모순되는 두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로테스크한 인물들과 다양한 폭력 표상이 가지는 윤리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오코너의 작품에 접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617)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한다. 『현명한 피』의 고찰에서는 상품의 경제와 신성한 질서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각성의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에서는, 일가족 학살 사건을 통해 폭력과 신앙이 타자에 대한 책임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이 분석될 것이다. 「계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점은, 이 작품이 구약성서의 인물 욥(Job)의 고난을 현대 세계로 끌어와 미국 남부에서 기독교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탐구하는 과정에 두어질 것이다. 세 작품에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와 폭력 표상은 자본주의, 과학, 그리고 응보주의 등 현대의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반성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오코너의 폭력은 현대의 가치체계에 지배되는 인물과 독자에게 충격을 주면서 윤리적 경험에 개방시킨다. 오코너의 작품은 폭력과 종교를 윤리로 수렴하고 있다.

주제어: 폭력, 윤리, 경제, 구원, 자본주의, 과학, 욥, 응보주의

1. 서론

플래너리 오코너(Flannery O'Connor)는 미국 남부의 가톨릭 작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작품 세계는 그로테스크(grotesque)한 묘사와 다양한 폭력 표상으로 가득차 있다. 남부 고딕(Southern Gothic) 문학에서 그로테스크 기법은 캐롤 A. 마리온(Carol A. Marion)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남부로 침입한 근대성,’ 즉 이 지역의 전통적인 공동체, 가족, 그리고 종교 중심의 생활 양식에 이런 것들과 양립할 수 없는 요소들이 강요된 결과 문화적 통일성이 붕괴된데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다(5). 남북 전쟁 이후 팽배해진 패배감과 좌절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변화에의 대응은 주로 인물들의 신체적·정신적 기형(deformity)이나 과거에의 집착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 장르에 속하는 작품군에는 노예제도와 인종주의에 밀접히 얽혀있는 남부 백인의 죄의식이나 내면의 어둠에 대한 탐구 등 비판적 의식이 가로놓여 있다.

이런 전통에 위치되면서도, 오코너의 작품들이 해석되는 또 하나의 비평적 맥락은 인간의 ‘구원’(redemption)의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점은 여러 연구자나 비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작가 스스로 강연이나 서신 등에서 자신의 문학의 종교적 주제를 여과없이 드러내는데서 쉽게 확인된다. 이와 같은 주제는 “악마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은총적 행위”(Mystery 118), 즉 온갖 모순이 중첩된 현실 속에서 구원을 희구하는 인물들을 통해 표현된다. 이 인물들을 현실의 각성과 종교적 삶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폭력’이다. 그러나, 폭력과 구원의 결합은, “폭력은 나의 등장 인물들을 현실로 되돌리고 은총의 순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Mystery 112)는 작가 자신의 해명이 필요할 정도의 모순을 배태하고 있다. 물론, 이 이상한 힘은 인물들을 세속적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초월시키는데 필요한 역설로서 오코너의 작품들 내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주제를 이루는 개념들의 모순적 결합 이외에도, 오코너의 문학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서사 기법과 관련되어 있다. 비록 폭력이 인물들의 신성한 세계로의 초월을 유도하는 서사적 기능으로 의도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작품들에서 신이 전적이고 직접적으로 표상되지는 않는다. 그녀가 구성하는 플롯은 성서의 이야기들을 환기시키지만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원용하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Srigley 29)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물들은 성서의 틀 속에서 행동하지만, 정작 그 해석은 종교적인 메시지로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코너의 첫 장편소설인 『현명한 피』(*Wise Blood*)에서 헤이즐 모츠(Hazel Motes)는 스스로 맹인이 되어 이전과는 달리 영적인

삶을 택한다. 이것은 신약성서의 인물 사도 바울(Paul)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회심’(conversion)하는 장면을 환기시키지만, 이야기에는 헤이즐에게 있어서 은총(grace)의 도래와는 다른 종류의 각성에 대한 암시가 산재되어 있다. 그는 원래 무신론을 주장하며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면에 잠재한 폭력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후 그의 관심은 종교적 구원으로 옮겨가지만, ‘은총’을 고행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경제’(economy)로 오인함으로써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적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한계는 동시에 이 작품의 의미를 윤리적 차원에서 고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오코너의 작품들에서 주목되는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노예제도나 인종차별 등의 유산이 남아있는 남부의 문화 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소설적 무대와 접하는 독자는 사회와 문화의 폭력적 기원에 대한 자각으로 우선 유도된다. 그녀의 단편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A Good Man Is Hard to Find”)¹⁾에 대한 캐슬린 G. 오취슨(Kathleen G. Ochshorn)의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취슨은 “은총은 이 이야기에서 폭력을 가리고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거추장스러운 가면이다”(114)라고 지적하면서, 주인공인 할머니(Grandmother)와 일가족이 당하는 살해라는 폭력을 구원에 연결시키려는 해석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한다. 오코너의 후기 단편인 「계시」(“Revelation”)에서도, 생면부지의 소녀에게 갑작스럽게 폭력을 당한 터핀 부인(Mrs. Trupin)은 구약성서의 인물 욥(Job)에 비유된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 신의 섭리와 인간적 의로움(righteousness)의 화해에 이르지만, 신에 대한 항의로

1) 이하 「좋은 사람」으로 표기하고,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제목없이 쪽수로만 표시함.

일관하는 터핀 부인에게 나타나는 계시의 의미를 현실적 모순의 종교적 해결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오코너의 작품들에서 폭력과 구원의 인과관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인물들의 해석은 남부 사회 내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주체라는 측면과 분리된 채 이루어지기 어렵다.

위의 세 작품의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계기가 거부할 수 없는 고통 혹은 시련으로서의 폭력이라고 할 때, 그 결과는 종교적 회심 이전에 안온하고 강고한 자기 중심적 세계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세계 속의 자기라는 위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윤리적’ 주체로 변모할 가능성은 이런 파괴적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오코너의 인물들 속에서 타자에 대한 상상력의 맹아를 발견할 가능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명한 피』, 「좋은 사람」, 그리고 「계시」에 표상되어 있는 그로테스크한 남부에서의 폭력의 제상을 통해 오코너의 문학이 가지는 윤리성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현명한 피』

1) 소비문화와 향상

『현명한 피』는 오코너의 두 장편소설 중 첫 작품이다. 이 작품이 발표된 당시인 1950년대 초반은 남부에서도 소비문화가 확산되던 시기이고, 이런 변화는 종교를 중심에 두는 이 지역의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오코너의 작품들에서 성과 속의 대립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주요 동인이라고 할 때, 『현명한 피』에서는 자본주의 질서와 신성한 질서가 그 구체적 대립항이 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기인’(freak)들로

조형되어 있고, 이들의 그로테스크함은 두 질서의 충돌에서 결과 되는 왜곡된 삶에 선명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공간적 배경인 토킨햄(Taulkinham)은 남부적 분위기를 띤 가상의 도시로,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을 통한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소비문화와 종교의 상업화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그로테스크 기법은 앤드류 J. 볼(Andrew J. Ball)이 정의하듯이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는 소비문화의 기준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방식”(11)이다.

토킨햄의 많은 기인들 중에서도 에녹 에머리(Enoch Emery)는 상품에 대해 유독 강렬한 욕망을 드러낸다. 에녹은 토킨햄 중심부에 있는 삼림 공원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청년으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살아간다. 그는 근무가 끝나면 슈퍼마켓에서 통조림을 멎하니 바라보거나 시리얼 상자에 적힌 설명 문구를 읽고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것들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구경만 하거나 때로는 훔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 또 화자는 에녹이 “알람 시계, 화장수, 캔디, 생리대, 만년필, 휴대용 손전 등이 전시된”(Wise Blood 135)²⁾ 상점 유리창에 기대어 서있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토킨햄을 넘어 넓게는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 만연한 이와 같은 욕망의 대상에는 상품의 사용 가치(use value) 뿐 아니라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말하는 ‘기호 가치’(sign value) 또한 포함된다. 이 가치는 에녹에게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여 ‘향상’될 것이라는 믿음, 보드리야르의 표현을 빌자면 “마술적 구원”(26) 관념을 심어준다. 에녹의 믿음에는 생활 수준의 개선 뿐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단한 존재”(193)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표현되어 있다.

2) 이하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제목없이 쪽수로만 표시함.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 에녹이 취하는 행동에는 스스로 동물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신이 ‘현명한 피’를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능이 약간 낮고 모자라는 행동을 일삼는 그는 영화관 앞에서 영화 홍보를 하는 광경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상을 발견한다.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 앞에는 관객들이 줄을 서서 악수하려고 기다리고, 에녹은 그것과 같은 “대스타”(179)가 되고 싶어진다. 그는 결국 그 분장을 훔쳐 뒤집어 쓰고,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은 땅에 묻는다. 상품과 마찬가지로 동물화는 그가 새롭게 얻고자 하는 정체성을 지탱하는 욕망의 표출이며, 양자는 소비사회에서의 삶의 향상에 내재된 모순을 공유한다. 이와 같은 욕망이 토킨햄의 종교적 상황에서 표현될 때는 세속의 질서와 신성한 질서의 혼동으로 나타나며, 그 구체적 형체는 이곳의 타락한 복음주의(evangelicalism) 설교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상품과 종교

『현명한 피』에서 남부의 종교적 상황은 주로 소비문화에 지배되는 현대인의 표피성과 천박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예수 영업”(40)을 통해 묘사된다. 대표적으로, 사기 설교사 오니 제이 홀리(Onnie Jay Holy)는 현란한 말솜씨와 영업 수완을 발휘하여 구원을 ‘판매’한다. 그는 매일 밤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 헤이즐을 자신의 영업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한다. 원래 헤이즐은 죄도 타락도 심판도 구원도 없다는 독자적 신학에 기초해서 자신이 설립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55)를 포교하기 위해 설교한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고, 예수营业을 격렬하게 비난한다. 하지만, 청중은 그를 “시장의 가게에서 뭔가를 파는”(148) 사람이기라도 한 듯 바라본다. 그런 청중 속에 있던 오니 제이는 그 자리에서 헤이즐을 예언자로 추켜 세우며, 그 교회 이름

을 교묘하게 차용하여 자신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교회”(151)의 설교사라고 소개한다.

오니 제이의 설교가 일견 사기와 말솜씨에만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헤이즐의 주장을 상업적 목적에 맞게 왜곡하는데 성공한 근거에는 ‘온유함’(sweetness)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유함과 사랑에 가득차 태어납니다”(150)라고 말하며, 자신의 교회에 와서 “내면에 있는 온유함의 장미 송이를 피워내는 비용”(153)으로 일 달러를 요구한다. 오니 제이는 기독교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구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사람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 그는 상품을 통한 향상을 꿈꾸는 토킨햄 사람들의 욕망을 구원으로 치환시켜 이윤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토킨햄에서 성행하는 ‘예수 영업’의 모순은, 신에 의해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교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질서로 환원시킨다는 점에 있다. 구원이란 인간에게 어떤 보답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여’(gift)의 질서에 속하지만, 상업화된 종교는 그것을 등가 교환, 즉 ‘경제’적 과정으로 회수시킨다. 오니 제이는 구원을 손쉽게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신과 인간의 관계를 기형화하는 것이다.

토킨햄에서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이야기 앞부분에 등장하는 복음주의 설교사 아사 호크스(Asa Hawks)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가짜로 맹인 행세를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설교사이다.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는 장면에는 길거리에서 감자깍이(potato peeler)를 판매하는 상인이 함께 등장한다. 상인은 마치 “제단 앞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34)듯이 길거리에 임시로 마련한 판매대 앞에서 기계를 직접 시연해 보이면서 단 일 달러 오십 센트로 감자 깎는 노고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외친다. 호크스는 상인이 모아 놓은 청중 앞에서 동전 하나만 지불하면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친다. 그는 “회개하기 싫으면 오 센트

동전 하나만 내십시오”(36)라고 말하며 신앙을 편리한 상품으로 변질시킨다. 두 사람은 각각 설교와 상품 판매를 하기 위해 같은 청중을 놓고 서로 다투지만,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에 의한 삶의 초월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토킨햄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혁과 초월에 이르는 길이 물질을 통한 삶의 향상과 경제를 통한 구원이라는 관념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3) 착종하는 폭력과 윤리

『현명한 피』의 기본적인 플롯은 주인공 헤이즐이 어린 시절 광신적 설교사인 할아버지와 경건한 기독교도인 어머니에게서 강요 받은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노력의 도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유도 모른채 “이름도 정체도 모를 죄”(59)에 대한 의식과 공포감을 가지게 된 헤이즐은 “예수를 피하는 방법은 죄를 피하는 것”(16)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자기 처벌에 의해 치르는 것이다. 그는 어린 시절 스트립쇼를 우연히 보게 된 일의 잘못을 추궁당하는 도중 “예수께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거야”(59)라는 어머니의 말에 “난 부탄한적 없는데”(59)라고 대답한다. 그 후 신발 바닥에 돌맹이를 깔고 걸어다니며 그것으로 ‘빳’을 갚았다고 생각한다(60). 이 에피소드에서 제시되는 것은 ‘자유’(freedom)라는 주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이 인간에게 빛으로 인식될 때 그 부채 의식이 삶의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헤이즐은 전쟁에 징집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 고향 이스트로드(Eastrod)로 돌아가지만 그곳이 이미 폐허가 되었음을 보고 토킨햄으로 향한다. 그가 토킨햄에 와서 자유를 얻기 위해 선

택한 방법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와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설교이다. 설교사가 되기 전에 그는 타락한 행동을 함으로써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그것은 매춘부 레오라 와츠(Leora Watts)를 찾아가고, 호크스의 딸 사바스(Sabbath)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헤이즐은 호크스의 설교를 듣고 강한 인상을 받아 길거리에서 설교를 시작하지만, 그 내용은 극단적인 무신론에 기초해 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진리가 있고, 여러분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진리도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진리는 단 하나 뿐입니다. 진리는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165)라고 외친다. 이 인물의 말과 행동이 과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와 구원의 부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헤이즐의 이와 같은 무신론적 세계에 균열이 감지되는 것은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로 솔러스 레이필드(Solace Layfield)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에서이다. 솔러스는 헤이즐의 복장을 그대로 흉내내어 입고 다니면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교회를 차용해서 설교를 하고 돈을 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사람들이 쌍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닮아 있고, 헤이즐조차도 솔러스에게서 자신의 “환영”(167)을 볼 정도이다. 헤이즐은 솔러스가 설교를 하는 것을 본 순간 살해를 결심한다. 솔러스는 헤이즐이 무신론에 근거해서 자유를 얻는데 있어서 최대의 위협이고, 토킨햄에서 그 해결의 유일한 수단은 폭력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헤이즐의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얻고자 하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살인이 이 작품에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 벌어지는 의외의 상황이 헤이즐의 신념을 바꾸어놓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솔러스는 최후의 순간 도둑질이나 거짓말 등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고 “주여 저를

보살피소서”(207)라고 말하며 신을 찾는다. 솔러스에게 회심이 일어났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로, 이 폭력적 사건은 헤이즐의 신념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자신의 거울 이미지와도 같은 분신(doppelganger)적 존재가 보여준 최후는 그에게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오코너는 헤이즐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분[예수]을 따르거나 사람들에게 비열한 짓을 하면서 즐기는 것 … 사이에서 선택해야 함을”(The Habit 350)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예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신을 모독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때로는 폭력도 행사하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이다. 결국 헤이즐은 오코너가 말하듯 “삶에는, 심지어 비열한 짓에도 진정한 즐거움이란 없음”(The Habit 350)을 알게 된다.

이후 그의 행위는 고행과 금욕으로 일변한다. 그는 설교를 그만두고, 눈에 석회를 넣어 스스로 맹인이 된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기 처벌을 좀 더 강화시켜 신발 바닥에 돌맹이와 유리 조각을 넣고 걸어 다니며, 상체에 철조망을 두르고 잠을 자는 등의 고행을 실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매달 지급받는 상이군인 연금 중 하숙집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휴지통에 버린다. 이 행위들은 신성한 질서에 참여하려는 헤이즐의 노력을 감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신과의 합일을 보증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구원이란 상품처럼 손쉽게 구입하여 즉각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임은 알고 있지만, 그는 고행과 금욕을 “대가를 치르는”(226)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행과 금욕이 상품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치러지는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속죄와 구원의 관념 역시 자본주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헤이즐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경제적 관계로 재구성하고 있고, 바로 이 오인

이 완전하고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그는 토킨햄의 물신숭배(fetishism)적 경제에 기초한 신앙을 초월하려고 하면서도, 그 기본적인 원리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헤이즐의 모순은 교환에 기초하는 경제와 무상의 증여에 기초하는 구원을 혼동하는데서 유래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혼동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논의에 따르면, 증여는 실행됨과 동시에 “상징적 등가물”(13)로 치환됨으로써 경제로 회수되어 버린다. 혹은 마르셀 모스(Marcel Mauss) 식으로 말하자면, ‘하우’(hau)나 ‘포틀래치’(Potlatch) 등이 순수 증여 행위라고 여겨지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답례의 기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엄밀히는 “증여교환”(16)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데리다와 모스의 증여론이 말하는 것은 순수 증여가 언제나 교환의 경제로 회수되고 만다는 사실이며, 헤이즐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헤이즐은 소비사회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하고, 구원을 갈망하지만 신과 일체가 되지도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는, 바꾸어 말하면, 성과 속을 아포리아(aporia)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곤경은 토킨햄에서 자본주의와 상업화된 종교 등 현실의 근저에 있는 욕망과 힘을 들추어낸다. 프레스턴 브라우닝(Preston Browning)이 지적하듯이 오코너는 “극단적인 것, 도착적인 것, 폭력적인 것에서 현실을 발견하려는 끈질긴 습관”(56)을 가지고 있고, 토킨햄은 그런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의 기인들이 거부감을 주면서도 일정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그들의 그로테스크함에 현대 사회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코너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헤이즐을 통해 독자에게 경제와 구원 사이에서의 결정불가능성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인물은 세속/신성, 경제/증여의 이항대립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 경계가 끊임없이 해체되고 다시 구축되는 계기로서 이야기 속에 자리잡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통해 구원을 희구하는 것이 오히려 신과의 관계에서 인간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기는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계는 한편으로는 신과의 단절을 가리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헤이즐의 삶이 가지는 인간적 내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초월을 향한 그의 노력은 끊임없이 현실적 차원으로 되돌아오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에 착종되어 있는 폭력과 윤리를 전경화시키고 있다. 『현명한 피』에서 묘사되는 충격적 현실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과 속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순은 소비문화와 물질주의의 내면화에서 형성되는 강고한 자아와 타자의 경계 지점에서 생기는 세계 속의 주체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토킨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는 인간의 한계와 새로운 자신의 인식을 향한 초월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세계의 이미지이다. 폭력, 자유, 그리고 구원 사이를 오고간 헤이즐의 삶과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의 자기 초월을 향한 분투가 가지는 윤리적 가능성이다.

3. 「좋은 사람」

1) ‘좋은 사람’과 남부적 선

「좋은 사람」에서는 제목의 일부인 ‘좋은 사람’(good man)이라는 말이 라이트 모티프(leitmotif)로 사용되면서 남부적 ‘선’(goodness)의 의미와 그 정당성에 대한 물음이 주제화되고 있다. 이야기에서

이 말을 상투구처럼 사용하는 할머니의 인간성은 통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녀는 자기 중심성, 위선, 기만으로 가득할 뿐 아니라, 전쟁 전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이상적 남부(antebellum South)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 할머니를 포함한 일가족 여섯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플로리다(Florida)로 여행에 나서지만, 그녀는 술수를 동원하여 대농장과 저택이 있었던 테네시(Tennessee)로 행선지를 변경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잘못된 것이었고, 그곳으로 가는 숲속 도로를 통과하던 도중 자동차는 사고를 일으킨다. 일가족은 마침 그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탈옥수 미스핏(the Misfit) 일당과 마주쳐 몰살당한다.

할머니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독자들에게 제도 공감을 얻기 힘든 성격으로 조형되어 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남발한다. 여행 도중 들른 휴게소 장면에서도 이 상투구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가게 주인인 레드 새미 버츠(Red Sammy Butts)가 얼마전 외상 기름값을 떼인 일을 말하며 자책하자 할머니는 그에게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122)라고 위로한다. 새미 버츠 또한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122)라고 말하며 옛날이 좋았다고 맛장구를 친다. 스탠리 레너(Stanley Renner)의 설명에 의하면 두 사람의 친밀감은 레드 새미가 사용하는 남부 사투리와 이들의 공통된 가치체계에서 형성된다(126). 할머니에게 ‘좋은 사람’의 기준은 옛 남부의 기억을 공유하는지의 여부이다. 이와 같은 남부적 선에 기초해서 구축된 세계가 폭력과 마주했을 때 드러나는 위선과 기만, 그리고 목숨을 요구받는 극한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의 인식 가능성이 「좋은 사람」의 핵심적 주제를 이루고 있다.

2) 폭력의 논리

할머니의 아들 베일리(Bailey)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독 아래로 굴러 떨어진 후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스핏 일당은 사고 현장에 접근한다. 결국 일가족은 차례차례 숲속으로 끌려가 살해되고, 공포감이 극도로 고조되는 동안 할머니의 세계도 붕괴되어 간다. 숲에서 총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서도 자신만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할머니와,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들려주며 실존적 고뇌를 토로하는 미스핏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겹쳐지면서 공포스러우면서도 기묘한 분위기가 연출된다. 할머니는 미스핏에게 “설마 귀부인을 총으로 쏘려는 건 아니겠죠?”(127), “당신은 좋은 사람 같아요”(127),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130) 등의 말을 늘어놓으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한다.

이에 비해 미스핏이 피력하는 인생관과 종교관은 할머니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다.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남부라는 껍질에 쌓여 살아온 할머니와는 달리 그의 삶은 온갖 경험으로 가득하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잘못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진 것,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부친 살해의 죄를 뒤집어 쓴 것, 가스펠송 가수, 농부, 군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직업을 전전한 것 등이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산 채로 매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누군가가 산 채로 불태워지는 잔혹한 장면도 목격하는 등(129-30), 세계는 악으로 가득한 곳으로 경험된다.

그런데, 이 인생 경험은 미스핏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일부에 불과하며, 거기에 신학적 해석이 합쳐질 때 일가족 학살극의 논리는 완성된다. 신에게 ‘기도’하라는 할머니의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미스핏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유일한 분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였는데, 모든 것의 균형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요. 그 분이 말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겠죠.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고 온갖 비열한 짓을 저지르면서 말이죠. 악행 말고는 별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요. (132)

사실, 이 논리에서는 오코너가 『현명한 피』의 헤이즐을 통해 제시했던 주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다만, 미스핏이 헤이즐과 다른 점은 과학적 실증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존재론적으로 자신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그 무엇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Spivey 123), 따라서 부활의 기적은 은총이기는커녕 자신의 세계에서 ‘모든 것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이 된다. 자신이 그 현장에서 부활의 순간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면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그는 갈라질 듯한 목소리로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었을테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132)라고 말하며 뒤틀린 얼굴을 할머니에게 바짝 들이민다. 그는 오코너가 헤이즐에게 제시한 선택지 중 ‘비열한 짓’을 택해 온갖 범죄와 살인을 저지르는 폭력의 화신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선택에 감추어진 고뇌의 흔적을 역력히 드러낸다.

헤이즐에게 있어서의 자본주의 경제처럼 미스핏은 과학적 실증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신에 대한 인간의 전통적 태도와 충돌한 결과로서 폭력은 탄생한다. 서사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오코너는 「좋은 사람」에서 가치체계상 ‘좋은 사람’ 보다는 ‘폭력’에 더 높은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성, 예의범절, 신앙에 대한 성찰 등 모든 면에서 미스핏은 할

머니를 압도하며, 따라서 독자의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희생자보다는 살인마에게 감정을 이입시키는 일견 무모한 서사 전략은 현대인 또한 미스핏과 다를 바 없음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할머니 일가족 몰살의 참극은 미스핏과 마찬가지로 독자 또한 현대의 가치체계를 원인으로 하는 폭력과의 공모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폭력과 타자

「좋은 사람」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장면은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다. 일가족 다섯 명을 모두 죽이고 이제 자신의 목숨마저 요구하는 미스핏의 뒤틀린 얼굴이 거의 닿을 듯 다가왔을 때,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올리고 “너는 내 아기구나. 너는 내 아이야!”(132)라고 말한다. 오코너는 이 놀라운 행위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신비에 깊이 뿌리박힌 혈족같은 유대로 그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Mystery 111-12)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설명 또한 가족을 모두 죽인 살인마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만큼이나 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이 마지막 장면과 작가의 설명의 의미를 이해하는데는 성서에 기록된 치유의 기적과 관련된 이미지에 대한 참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손을 뻗어 사람의 어깨에 올리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예수가 병자를 치유할 때 수반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Mark) 1장 41-42절에는 예수가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 사람에게 올리고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에게서 병이 떠나고 나았다”(International 553). 예수는 이런 식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와 달리 할머니는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되지 않는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 있다. 그녀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고뇌를 치유할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야기 전체에서 너무나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고립무원에 빠진 일가족의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자동차를 수리해 주기 위해 접근했던 쪽은 미스핏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자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는 그 역시 할머니의 행위에서 위로나 치유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직접 “아무 도움도 필요없”(130)으며 신을 믿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했고, 오히려 할머니의 손이 어깨에 닿은 순간 “뱀에게 물리기라도 한 듯 놀라”(132) 뒤로 물러나며 그녀의 가슴에 총 세 발을 발사한다.

이 장면은 “의도될 수 있는 어떤 말끔한 알레고리도, 또 독자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도덕적 범주도 넘어서는”(Mystery 111) 행동을 통해 이야기를 작동시키는 오코너의 기법의 실례 중 하나이다. 현대인들을 등장시켜 성서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이 장면은 구원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그 기대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가 미스핏에게 느끼는 ‘책임’의 의미도 이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할머니의 마지막 행위가 미스핏의 폭력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자기 중심성이 붕괴된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좋은 사람」에 대한 해석은 두 인물 사이에서 인간적 관계의 맹아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장면을 치유의 기적에만 의거해서 읽을 때 발생하는 의미의 한계를 알아차림으로써 가능해진다.

4. 「계시」

1) 터핀 부인과 욕

「계시」는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터핀 부인(Mrs. Turpin)에게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력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그녀가 신과의 관계를 아마도 처음으로 묻게되는 구도를 띠고 있다. 터핀 부인은 남편 클로드(Claud)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들른 병원 대기실에서 메리 그레이스(Mary Grace)라는 생면부지의 소녀에게 공격을 받는다. 못생긴 얼굴에 여드름 투성이인 그레이스는 읽고 있던 책을 터핀 부인에게 집어던지고 쓰러뜨린 후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고 한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주저앉은 후에도 부인에게 “지옥에서 왔으니 그리로 다시 돌아가. 늙은 돼지 같으니라고”(“Revelation” 500)³⁾라고 말한다. 터핀 부인은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진 채 집으로 돌아오지만, 소녀에 대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신에게로 향하기 시작한다. 자신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이고, 열심히 일하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째서 그런 폭력을 당하고 심한 말을 들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 나머지 “왜 저예요?”(507)라고 신에게 항의한다.

터핀 부인의 세계가 외부의 어떤 가치들과도 단절된 폐쇄성을 강하게 띠고 있음은 이야기의 서두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좁은 병원 대기실에 들어서면서 그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분류하는 것이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못생기고,’ ‘지저분하며,’ ‘쓰레기 같은’ 저급해 보이는 사람들과, ‘복장을 잘 갖추어 입은’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자신의 기준에 따른 사람들의 분류와 차별의식은 우월감과 표리를

3) 이하 이 작품을 인용할 때는 제목없이 쪽수로만 표시함.

이루고 있다. 그레이스의 책이 얼굴로 날아들기 직전, 그녀는 우월감을 망상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제 장점을 굳이 말해보라고 하면 … 뭐랄까, 감사할줄 안다는 거라고나 할까요. 어떤 것이든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성품도 훌륭하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고 외치고 싶어지죠.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499)

이후 갑자기 일어난 폭력은 이 작품의 주제가 이와 같은 가치체계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데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터핀 부인에게 있어서 “내면으로의, 인종주의와 잘못된 근거에 기초한 자부심의 함의를 들여다보는, 길고도 험난한 움직임”(Paquet-Deyris 3)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터핀 부인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외양이지만, 이외에도 그녀의 분류 체계에는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특징, 즉 ‘청결함’(cleanness)이 있다. 그녀는 만약 신이 ‘쓰레기 같은 백인’과 흑인 중에서 어느 쪽이 되고 싶냐고 묻는다면, 쓰레기 같지만 않으면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491). 또, 대기실에서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얼굴은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앉아 있는 어린아이가 눈에 띄게 거슬린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들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자기 집 돼지는 절대 씻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기실의 다른 여자를 내심으로 경멸한다(493-94).

「계시」에서 ‘청결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이 이야기 후반으로 가면서 위생과는 달리 종교적 의미를 띠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는 터핀 부인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분노에 휩싸인 채 돼지 축사를 청소하는 장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장면이 그보다 조금 앞서 화자가 그녀를 다음과 같이 구약성서의 인물

욥(Job)에 비유하는 대목과 합쳐질 때 ‘청결함’의 종교적 함의는 더욱 높아진다. “그녀는 눈 앞에는 없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백(innocence)을 증명하려는 듯이 주먹으로 가슴을 어찌다 한 번씩 두들겼다. 그들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틀렸던 것이다”(503). 『욥기』(Job)에서 욥은 재산과 가족을 모두 잃고 자신마저도 병에 걸려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고난을 당한다. 이 상황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에는 ‘청결’이 ‘결백’이나 ‘깨끗함’(pure) 등의 말과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 말들을 통해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불시에 닥친 고난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의로운(righteous) 사람이며, 신을 진심으로 섬기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잊지 않는다. 때문에 그는 신에게 그 고난의 근거를 물으며, 이것은 인간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유 있는 문제 제기이다. 터핀 부인과 욥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청결함, 즉 죄 없음은 자신의 원리와 기준에 기초해 있고, 그런 한에서 외부 혹은 초월적 질서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의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 응보주의와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

욥과 그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인 엘리파스(Eliphaz), 빌닷(Bildad), 그리고 소팔(Zophar)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적 주제는 ‘응보주의’(retributivism)이다. 선인에게는 행복이, 악인에게는 재앙이 주어져야 한다는 이 인과적 사상은 J. 제랄드 얀젠(J. Gerald Janzen)이 “깊이 뿌리내린 감성과 공공의 확신”(88)이라고 말하듯이 인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본적 원리로 인식된다. 각자 주장의 근거는 다르지만, 세 친구 모두 욥에게 닥친 재앙의 원인을 응보원리에 의거해서 찾는다. 4장 8절에서 엘리파스가 욥에게 “생각해보라, 결

백한 자가 멸망한 적이 있는가? 의로운 자가 파멸한 적이 있는가?”(International 281)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욥이 무언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반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잘못을 찾을 수 없는 욥에게 그런 말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인간과 신의 관계가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인과율에 기초해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일은 부당하며 응보원리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계가 ‘자의적’이고 ‘무질서’하게만 보이는데서 생기는 욥의 의문이 해소되는 것은, 그에게 신이 갑자기 말을 걸며 나타나는 때이다. 38장 2절에서 신은 “어리석은 말로 나의 섭리를 가리는 이 자가 누구냐?”(International 295)라고 질책한다. 욥의 의로움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신의 섭리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우주의 질서는 응보원리와는 무관하며 신비에 속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결국 인간의 지혜와 신의 지혜의 화해에 이르게 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받는다.

돼지에게 호스로 물을 뿌리고 축사를 씻는 일은 원래 클로드가 맡아 했지만, 사건이 있는 날 터핀 부인은 청소를 자처하고 나선다. 자신이 청결하며, 따라서 그런 일을 당할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이 행동에 포함되어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찰할 수 있다. 그녀의 항의는 신이 응보원리를 어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의 가치체계가 가진 모순 또한 점점 불거진다. 농장에서 일하는 세 명의 흑인 인부가 그 사건에 대해 들은 후 오코너 특유의 상투구를 벗어나지 않는 위로를 건네자, 터핀 부인은 “깜둥이에게 지적인 말이 통할 리가 없다”(505)고 생각하며 이전처럼 그들을 내심으로 경멸한다. 클로드에게 호스를 건네받아 청소를 시작하는 것도 이 대화 바로 뒤의 일이며, 돼지에게 물을 뿌리는 동안에도 그레이스가 내뱉은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아까 쓰레기들이 많았고, 꼭 저한테 안 그래도 됐을 텐데요”(507), “저를 다시 돼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래 난간을 빠져 위에 괴어도 위아래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겁니다”(507) 등의 말을 허공에 대고 외친다.

그러던 중 그녀 앞에 펼쳐진 해질녘 하늘에 계시적 비전이 다음처럼 나타난다.

드디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늘에서는 자주빛 띠만이 눈에 들어왔다. ... 환상적인 빛이 그녀의 눈에 머물렀다. 띠는 마치 불타는 들판에서 위쪽으로 뻗어가는, 넓은 선개교처럼 보였다. 다리 위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쓰레기 백인들은 평생 처음으로 청결한 모습을 하고, 감둥이들은 하얀 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인들과 광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며 개구리처럼 뛰어 올라갔다. 그리고 행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 인지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자신과 클로드처럼 언제나 어떤 것이든 조금씩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분별력을 신에게서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은 맨 뒤에서 너무나 근엄하게 걸었고, 그때까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질서를 유지했고, 양식과 품위를 갖춘 행동을 잊지 않았다. 그 사람들만이 질서정연했다. 그러면서도 충격을 받아 놀란 그들의 얼굴은 그 미덕마저도 불타버리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508)

오코너의 작품에서 종교적 주제가 “교회적 ... 현실들과 양립할 수 없는 사회 구조나 가치체계를 가진 특정 문화에서 구체화된다”(Poggi 6)고 할 때, 이 환상적 비전은 그 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 중의 하나이다. 오코너는 위의 계시에서 터핀 부인과 욥 사이에 공통점만큼이나 차이점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욥의 고난은 신과의 화해로 이어지지만, 터핀 부인이 당한 폭력은 그녀의 가치체계를 지탱하는 모순적 현실 자체와 더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터핀 부인에게 계시는 폭력과 은총 사이에 있는

그녀에게 이전의 것과는 다른 공동체의 이미지로서 현현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방식에 의지해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는 「계시」는 응보주의에 잠재한 자기 중심주의적 위선과 기만을 직시하도록 만든다. 안일한 일상에 갑자기 닥치는 폭력은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지탱하는 근거의 취약함과 그것들에 기초한 행위 원리의 한계를 드러내며, 마지막 장면의 계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와는 다른 질서가 가능성으로서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오코너의 문학에서 성과 속의 대립은 현대의 보편적인 가치체제들과 그 대척점으로서의 종교적 질서가 대비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서사적 공간에서는 인간의 모순적인 존재 양태가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있고, 그것은 등장인물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묘사와 표리의 관계를 이룬다. 주로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대다수의 오코너 작품에서 폭력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것도 이 지역에 만연한 인종주의, 차별의식, 빈곤 등에서 결과되는 모순적 현실과 무관치 않다. ‘남부 고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엘렌 글래스고우(Ellen Glasgow)는 그 개념을 ‘목적 없는 폭력’과 현실에 대한 반근대적 이해로 정립했다(Poggi 18). 하지만,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를 위시해서 오늘날 코맥 매카시(Cormac McCarthy)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남부 고딕 작가들 사이에 공유된 관심사는 남부의 역사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들에게 폭력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학적 소재 중 하나이다. 오코너의 경우도, 그 작품들이 종교적 분위기를 띠지만 폭력을 통해 남부 사회와 남부인의 모순을 가감없이 활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그러나, 도린 파울러(Doreen Fowler)가 지적하는대로 “구원의 폭력”(128)이라는 모순의 해소는 여전히 해석상의 과제로 남는다. 파울러가 오코너의 단편 「그린리프」(“Greenleaf”)를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기호분석학(semianalysis)에서의 생산적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관련된다. 농장주인 메이 부인(Mrs. May)은 인부 그린리프(Greenleaf)가 키우는 소 뿔에 찢려 숨을 거둔다. 이 폭력적 사건은 메이 부인이 “자신의 자아가 분쇄되는 경험”을 하고, “그린리프 가족 … 또한 그 경계를 구성하는 과정의 일부”(Fowler 137)라는 점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오코너의 작품들이 보여주는대로, 폭력은 무엇보다도 우선 인물들이 자아/타자의 대립을 허물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 오코너의 작품이 가지는 윤리성은 이와 같은 변화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코너의 폭력은 자본주의, 과학, 응보주의 등의 가치체계들을 내면화한 인물들의 자아에 가해지는 충격을 전경화시킨다. 이 작품들에서 근대적, 보편적 가치들에 의해 배제된 다른 질서가 환기된다고 할 때, 폭력이 가지는 미학적 효과는 위선과 기만에 기초한 인물들의 강고한 자기 중심적 세계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인물이나 독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계 속에 위치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참고문헌

- Ball, Andrew J. “The Jesus Business: Flannery O’Connor and the Economy of Redemption”, *Literature and Belief* 40-1, 2020, pp. 9-23.
 Baudrillard, Jean. *The Consumer Society: Myths and Structure*, London:

- Sage, 1998.
- Browning, Preston, *Flannery O'Connor*,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74.
- Derrida, Jacques, *Given Time: 1. Counterfeit Money*, Peggy Kamuf (Trans.),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92.
- Fowler, Doreen, "Flannery O'Connor's Productive Violence", *Arizona Quarterly* 67-2, 2011, pp. 127-54.
- International Bible Society,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Grand Rapids: The Zondervan Corporation, 1984.
- Janzen, J. Gerald, *Job: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 1985.
- Marion, Carol A, *Dissorted Traditions: The Use of the Grotesque in the Short Fiction of Eudora Welty, Carson McCullers, Flannery O'Connor and Bobbie Ann Mason*, Dissertation, U of North Texas, 2004.
- Mauss, Marcel,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W. D. Halls (Trans.), London: Routledge, 2002.
- Ochshorn, Kathleen G. "A Cloak of Grace: Contradiction in 'A Good Man Is Hard to Fin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8-1, 1990, pp. 113-17.
- O'Connor, Flannery, "A Good Man Is Hard to Find", In *The Complete Stories of Flannery O'Connor*, New York: Farrar, 1971, pp. 117-33.
- _____. *Mystery and Manners: Occasional Prose*, Sally and Robert Fitzgerald (Eds.), New York: Farrar, 1969.
- _____. *The Habit of Being: Letters of Flannery O'Connor*, Sally Fitzgerald (Eds.), New York: Farrar, 1979.
- _____. "Revelation", In *The Complete Stories of Flannery O'Connor*, New York: Farrar, 1971, pp. 488-509.
- _____. *Wise Blood*, New York: Farrar, 1962.
- Paquet-Deyris, Anne-Marie, "Flannery O'Connor's 'Revelation': 'Some Vast Construction Work'", *Cercles* 3, 2005, pp. 1-11.
- Poggi, Alfredo Ignacio, "A Southern Gothic Theology: Flannery O'Connor and Her Religious Conception of the Novel", *Theologica Xaveriana*, 2020, pp. 1-23.
- Renner, Stanley, "Secular Meaning in 'A Good Man Is Hard to Find'", *College Literature* 9-2, 1982, pp. 123-32.
- Spivey, Ted R, *Flannery O'Connor: The Woman, the Thinker, the Visionary*,

Macon: Mercer UP, 1995.

Srigley, Susan, "Flannery O'Connor and the Art of the Story", In Charles E. May (Ed.), *Flannery O'Connor*, Pasadena: Salem, 2012, pp. 29-42.

(투고일: 2023. 5. 15 심사완료일: 2023. 6. 19 게재확정일: 2023. 6. 23)

원철
소속: 부산대학교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전자우편: cwono@hanmail.net

[Abstract]

Violence and Ethics of Flannery O'Connor

Won, Chul

A number of studies on Flannery O'Connor have claimed that violence in her works leads characters to redemption. But how the two contradictory themes are combined is a complex issue which still remains controversial. The present paper puts its focus on revealing the ethical significance in O'Connor's grotesque figures and representations of violence. In *Wise Blood*, economy of commodities stands at odds with divine order, and the opposition brings a hint of the possibility of ethical awakening. "A Good Man Is Hard to Find" converges violence and faith into responsibility to the others in a family murder case. "Revelation" draws Job's ordeal in *Old Testament* to modern world and reflects on its societal implications of Christianity in American South. In these three works, grotesque imagery and representations of violence provide a standpoint with which we take an in-depth view of modern and common value systems such as capitalism, science, and retributivism. It may therefore highly probable that we can conjecture the ethical experience of the figures, and readers as well. The constructs of these works lend the stories converge violence and religion into ethics.

Key Words: violence, ethics, economy, redemption, capitalism, science, Job, retributivism